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3-12호〉 2023년 8월 25일

정책/제도

초거대 AI의 국내외 현황과 이슈

■ 개요

- 초거대 AI와 생성형 AI는 챗GPT, GPT-4, 초거대 언어모델, 범용 인공지능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의 복잡함과 거대함,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로 인해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챗GPT의 경우에는 공개 후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1억 확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확산과 전격적인 글로벌 유료화인 챗GPT 플러스 출시, 출시 세 달 만에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 공개 등으로 인공지능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논쟁의 중심에 있음
- 초거대 AI로 분류되는 챗GPT와 같은 기술은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로 매우 신속한 기술 개발과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로, 최근 GPT-4의 등장과 함께 빅테크들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초거대 AI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으로 관련 기술 기업과 각국 정부들도 매우 긴박하게 대응
- 생성형 AI는 인간을 모델링하여 여러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판단 가능하도록 다양한 멀티모달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오픈AI API는 챗GPT, 알파고, 클로바 등 자연어, 코드, 이미지 이해 또는 생성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에 적용이 가능. 또한 범용AI(인간과 같은 능력을 갖는 보편적인 AD)는 인간과 달리 성능이 무한한 점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면도 존재. 이러한 배경 하에 해외 초거대 생성 AI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모델 개발과 관련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성형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1. 초거대 AI와 생성형 AI의 국내외 동향

- 초거대 AI란 일반적으로 매우 크고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로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훈련되며 많은 양의 계산 자원을 사용해 학습과 추론 작업을 수행. 초거대 AI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 생성형 AI 또는 생성 AI는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등을 생성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생성(Generative)이란 일일이 AI에게 지시하거나 학습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만드는 범용 AI를 의미. 생성 AI는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새로운 콘텐츠와 이미지를 생성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작업을 수행

* 초거대 AI와 생성형 AI는 개별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초거대 생성형 AI로 두 용어를 결합하여 이해될 수 있으며, 초거대 AI는 크고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생성형 AI를 포함하지만 생성형 AI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생성 모델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초거대 AI와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 모델을 포함할 수 있음

- 초거대 AI 모델인 GPT-4는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GPT-4에 이미지를 입력하면 캡션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분류 및 분석할 수 있는 특징과 함께 사용자가 채팅하듯 질문하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문장으로 답변

* 실제 챗GPT는 지금껏 출시된 서비스 중 가장 빨리 이용자를 확보하며 산업, 직업,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력을 확산 중. 주요 서비스 이용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넷플릭스 3.5년, 인스타그램 2.5개월인데 반해 챗GPT는 불과 5일 소요

- GPT-4는 입력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받아서 어울리는 대답을 보여주기 때문에 냉장고의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면 이용자가 음식을 만든다는 것을 예측한 후 그 재료로부터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 가능. 이와 함께 지난 5월 일본의 요리무이 신문에 의하면 GPT-3.5와 GPT-4에게 최근 5년간 일본 의사국가시험을 풀게 한 결과 GPT-3.5는 모두 불합격했지만, 최신 버전인 GPT-4는 모두 합격하며 사람 수준의 능력을 보임. 또한 GPT-4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로스쿨 시험에서 객관식 문항 95개와 에세이 문항 12개로 이뤄진 실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여 풀게 한 결과 헌법과 세금 및 불법행위 등 광범위한 내용을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해서 합격

- 해외의 주요 초거대 AI 모델과 관련된 서비스는 경우 구글의 바드(Bard),

오픈AI의 챗GPT와 달리(DALL-E), MS의 Bing-Chat, 메타의 라마(LLaMA) 등이 있으며 미국은 영어 중심의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며 일부 기업은 이를 OpenAPI 형태로 공개해 시장 선점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주도로 데이터·엔지니어 확보 및 집중 투자를 통한 초거대 AI 모델 구축을 발표

[표1] 해외 초거대 생성형 AI 개발 현황

기업명	모델명	방식	파라미터 수	공개여부
딥마인드	Gopher	GPT	3,500억 개	비공개
구글	PaLM	GPT	5,400억 개	비공개
구글	OPT-175B	GPT	1,370억 개	공개
구글	LaMDA2	GPT	1,370억 개	공개
오픈AI	GPT-4	GPT	170조 개	공개
중국인공지능아카데미	우다오	GPT	1조 7,000억 개	비공개
바이두	어니3.0	GPT	2,800억 개	비공개

-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와 4월에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포털·통신사를 중심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빠르게 구축하며 한국어 서비스 성능 고도화를 추진 중.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의 출시를 통해 신뢰성과 최신성 부족, 한국어 번역시 정확성 저하 등을 보완할 계획이며, 카카오는 연내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카카오브레인 KoGPT 기반의 버티컬 AI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국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을 자체 구축했으나 결과의 불완전한 신뢰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음

[표2] 국내 초거대 생성형 AI 개발 현황

기업명	모델명	방식	파라미터 수	개요
네이버	HyperCLOVER X	GPT	2,040억 개	세계 최대 한국어 초대형 언어모델로 검색어 교정, 노 코드 AI, AI스피커 기능 강화에 활용
카카오	KoGPT	GPT	300억 개	공개 모델 중 한국어 최대 규모
카카오	Min-DALL-E	GPT	600억 개	공개 모델 중 영상-언어(영어) 연계 최대규모
SKT	GLM	GPT	1,750억 개	세계 최초 한국어 대화 서비스 '에이닷' 상용화
KT	믿음	GPT	2,000억 개	KT 기가지니, AI 통화비서 등 적용 계획
LG	엑사원	GPT	3,000억 개	국내 영상-언어(영어) 연계 모델 중 최대규모 한국어 서비스 불가로 해외 제휴 또는 사내 원천 AI연구에 활용중

2. 연관 이슈 사항

- 초거대 생성형 AI는 특징상 대규모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있으나 학습 데이터의 부족과 과도한 컴퓨팅 리소스의 사용, 신뢰성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 경량화 기술, 머신러닝 학습 추론 방법의 개선 등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논의되고 있음
- 사전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의존적으로 인종·성별·정치성향 등이 편중된 콘텐츠가 생성되면서 AI의 비윤리성과 편향성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제거하는 필터링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AI모델의 편향성 제거를 위해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의 특징을 사전에 규명하고 분류 및 제거하기 위한 공정성 평가 도구, 프레임워크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거대 IT기업에서 학습 데이터 및 모델의 다양한 검증을 위해 비상업적 용도로 모델 및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 구축 중

[표3] 기업별 편향성 제거 및 완화를 위한 방안

기업명	편향성 완화 방안
구글	- 이미지/영상처리 AI에 응용하기 위한 몽크 스킨 톤(MST: Monk Skin Tone) 피부색 구분 체계로 인종 기반 피부색 대신 채도에 따른 10단계 체계를 활용하여 AI모델 평가
MS	- 모델의 성별, 문화적, 민족적 편향성을 학습 단계에서 제어하기 위한 오픈소스 페어런(Fairlearn)을 공개하여 데이터 지표를 기반으로 민감한 특징을 사전에 확인
메타	- 거대 언어모델 OPT-175B의 비상업적 서비스로 출시로 학습데이터와 모델, 코드 등을 공개해 연구자가 사전 테스트에서 발견하지 못한 자체 모델의 편향과 오용을 테스트 가능
네이버	- AI 모델의 편향성을 판단해 권장되는 내용과 비권장 내용에 대한 생성 확률을 각각 최대화/최소화 하는 학습 방식 연구
카이스트	- 인공지능 모델의 편향성 판단을 위한 프레임워크 MSIT AI FAIR 2022를 개발하여 AI 모델과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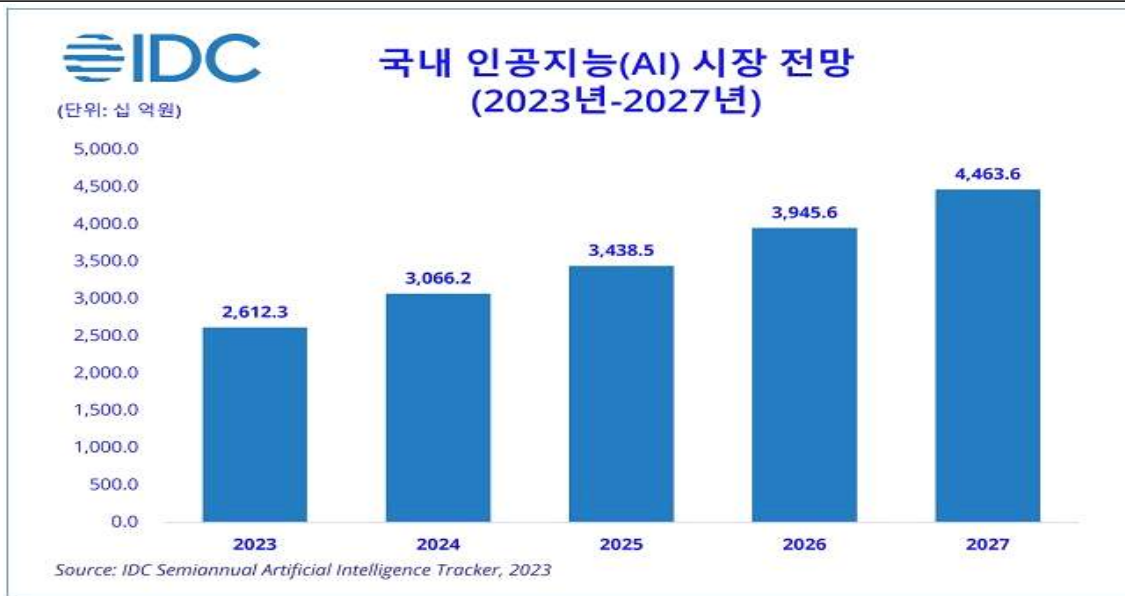
-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또는 인공 할루시네이션(Artificial 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해 AI는 진실 여부와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답변을 만들지만 이용자는 잘못된 정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부적절한 답변의 생성을 방지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현재 검증 가능한 생성형 AI 기술은 일상화가 촉진됨에 따라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결과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킹 기술, 증명트리 구성 등의 다양한 기술적 시도와 함께 학습과정에서 피드백에 관여하거나 생성된 결과를 제출 전에 사전 검증하는 등의 방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초거대 생성형 AI 기술 수준은 논문과 특허 보유,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관련 연구, 논문, 특허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기술 개발의 노력과 참여가 시급

* 영국의 과학 분야 컨설팅 기업인 클래리베이트(Clarivate Pl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22년 국가별 생성형 AI 상위 1% 특허 건수에서 중국이 256건, 미국이 159건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1] 국내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 시사점

- 국내 초거대 생성형 AI 기업들은 기술 개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재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핵심인재의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며,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인재를 확보한 네이버도 구글·MS에 비해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관련 인재의 확보가 시급.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생성형 AI 관련 인재의 양성지원과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수준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방법의 인재 발굴 기회와 함께 인재 양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계획이 필요

- 지난 달 11일에는 챗GPT의 등장, AI 미래와 과학, 윤리를 주제로 2023 과학기자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언어와 이미지를 포함한 질문 등 한정적인 시스템, 현실에 약한 사전학습 모델, 학습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제3자 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현재의 AI 기술은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 지능) 기술로 발전하여 로봇에 탑재되어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향후 사람처럼 다양성을 갖고 활동하는 디지털 휴먼이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저작권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지 관련 회사들은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방돼 만들어진 작품이 팔릴 경우 작가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AI의 저작권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으로 AI로 인한 부작용과 저작권 이슈 등의 문제는 복잡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규제를 논의할 필요

참고자료

- 제2라운드로 접어든 인공지능, 시작과 대책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404>

- 생성형 AI, ChatGPT의 할루시네이션

<https://blog.naver.com/jeanne78/223169988740>

- 초거대 AI ‘춘추전국시대’ 국내 토종AI의 차별점은?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31>

- AI 윤리성·편향성 문제 해결 “AI가 아닌 사람의 몫“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3/2023061303013.html

- AI반도체 혼풍에 활짝 웃는 기업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32>

- “자연의 회복력에 한계 왔다” 과학기자대회서 기후 위기·의사 과학자·AI 논의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60624>

해외동향

중국의 GPT 대응 동향

■ 개요

-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가 발간하는 AI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공지능 출원 건수 중 미국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5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유하면서 챗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
- 중국은 2021년 기준 약 40%로 AI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이며 논문의 질적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AI 저널의 인용 수 비중으로도 중국 30%, 유럽 22%, 미국 15%로 선도. 고성능 연산 인프라인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2017년까지 중국은 성능 기준 세계 1, 2위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보유 대수 기준으로도 중국 162대, 미국 127대, 독일 34대 순으로 미국을 앞서고 있음
 - * AI 논문 출판 수 상위 10개 기관 중 미국의 MIT를 제외하고는 중국과학원, 칭화대학교, 중국과학원대학, 상하이교통대학교, 저장대학교, 하얼빈공과대학교, 북경대학교 등 모두 중국 연구소와 대학이 차지
 - ** 2022년 6월부터는 미국이 대규모 정책 자금을 들여 개발한 엑사스케일 컴퓨터 프론티어가 1위,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후지쓰가 공동 개발한 후가쿠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성능면에서는 미국 43.6%, 일본 12.8%, 중국 10.6% 순으로 나타남
-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합작품인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언론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망하였고 이전에 비해 중국의 빅테크 관련 동향은 잠잠한 가운데 오히려 중국 정부가 챗GPT에 대한 우회 접속까지 차단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혁신 기술에 대해 규제 중심적인 중국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음

■ 주요내용

1. 중국 IT기업들의 AI 개발 현황

-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이자 인공지능 선도기업인 바이두는 지난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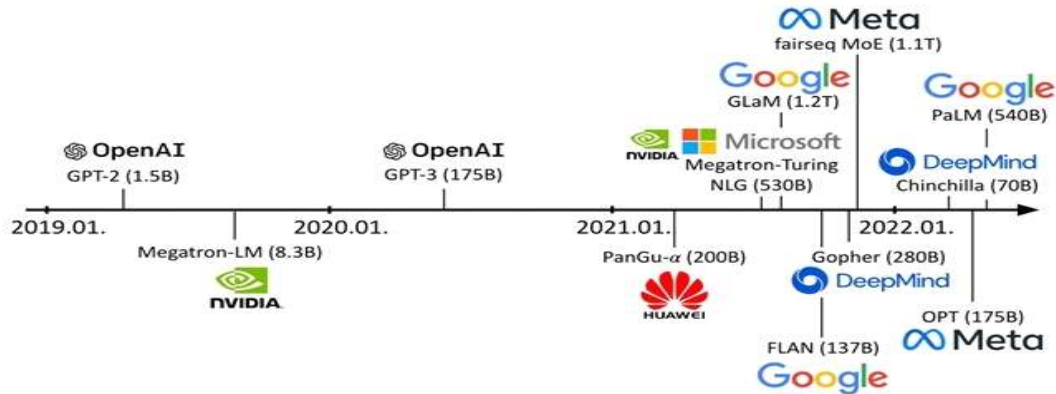
챗GPT의 대항마로 어니봇(ERNIE Bot)을 공개. 2019년 출시되었으며 첫 번째 버전 출시 이후 2021년에는 2,6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토대로 언어를 생성하고 텍스트 이미지 생성 작업을 수행하는 ERNIE 3.0을 출시

* 어니봇은 중국어로는 원신이엔으로 불리며 ‘지식 통합을 통한 강화된 표현(Enhanced Representation from Knowledge Integration)’의 약자로 표현

- 바이두는 인공지능 기술을 자사 보유 IT 생태계에 접목하면서 독자 개발한 AI칩(쿤룬), 클라우드, 자율주행플랫폼(아폴로), 오픈소스 플랫폼(바이두 브레인), 딥러닝 오픈소스 프레임워크(패들패들), 음성인식 AI(두어OS)를 통해 AI반도체부터 AI융합 가전 애플리케이션까지 AI생태계의 가치사슬 전반에 역량을 강화
- 알리바바는 그룹의 글로벌 연구 이니셔티브인 다모아카데미(DAMO Academy)에서 유사한 도구를 개발 중으로 2022년 11월에 글로벌 개발자 및 연구자들을 위한 대규모 사전 학습 모델인 모델스코프(ModelScope)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으며 다모에서 5년간 개발한 300개 이상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I모델과 함께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비디오, 오디오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 알리바바는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분야 관련 개발을 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1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며 1.9TB의 이미지와 중국어 텍스트 292GB를 학습하여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이미지 기반 질의응답, 이미지-텍스트 매칭 등을 목적으로 파인튜닝 된 멀티모달 AI 모델인 M6를 공개
- 텐센트는 챗GPT와 유사한 생성형 AI챗봇 사업화를 위해 훈위안(HunyuanAide, 우주)이란 이름의 AI챗봇과 텍스트 기반 비디오 생성 AI인 즈잉(Zhuying)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챗에 결합하고 주력 사업인 게임분야(코딩아트, 캐릭터 디자인)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적용할 계획. 또한 위챗을 통한 챗GPT 서비스 우회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챗GPT 접속 금지 정책에도 협력
- 화웨이는 2021년 4월에 이미 오픈AI의 GPT-3보다 많은 2,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인 판구-알파(PanGu- α)를 공개하였으며 1.1TB 분량의 중국어 전자책, 백과사전, 뉴스, 소셜미디어, 웹페이지에서 추출한 언어를 학습.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는 챗GPT와 유사한 챗봇의 테스트 버전을 공개하였으며, 안면인식 AI 기업인 센스타임은 대화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자사 초거대 AI 모델인 센스노바(SenseNova) 기반의 센스챗(SenseChat)을 공개

[그림1] 연도별 언어모델 개발 현황과 모델 크기의 증가 추이



2.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 미국 빅테크 중심의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은 통제 가능한 자국 기업 중심의 챗GPT와 범용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독자적인 AI생태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는지가 관건. 학습 데이터와 AI 모델에서 중국의 정책을 반영한 데이터 학습과 모델 개발 및 파인튜닝(Fine-Tuning)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가속화 될 전망
-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의 추축으로써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 요소인 AI 반도체 산업 육성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엔비디아가 관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구글이 2016년부터 자체 TPU(Tensor Processing Unit)를 개발해 인공지능 학습 인프라로 활용. MS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대표주자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구글도 카카오브레인, LG AI연구원과 협력하여 TPU기반의 구글 클라우드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있음
- 미국의 AI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5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으며 이에 화웨이는 2019년부터 AI반도체를 자체 개발 생산해 독자적인 AI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샤오미도 AI반도체 개발을 위한 난징다위반도체를 설립. 알리바바는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 중텐웨이를 인수해 신경망 칩인 Ali-NPU를 개발하고 있으며, 바이두는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에 적용가능한 반도체 쿼터를 공개

■ 시사점

- 챗GPT의 확산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론과 함께 유럽은 인공지능법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입장을 검토. 중국은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 조치라는 지침 초안을 공개하며 텍스트 모델 외에도 이미지, 소리, 영상, 기타 콘텐츠 등 생성형 AI 기술 전반에 걸쳐 대중에게 서비스 되는 AI 제품의 훈련에서 배포까지 사실상 출시 전 단계를 검열하고 있으며 향후 생성형 AI 기술을 촉진하되 보다 촘촘한 검인증 체계, 신뢰성 확보, 설명 가능성 등에 대해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규제가 인공지능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피해 위험에 관심을 두고 규제에 접근하는 반면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간주하고 콘텐츠의 검열과 신뢰성,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AI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챗GPT의 편향적 데이터 학습과 답변 오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한때 중국 정부는 신뢰성을 문제 삼아 챗GPT의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이러한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우려도 존재

참고자료

- 중국의 ChatGPT 대응 동향과 전망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041&mid=a20200000000
- 규제와 지원 '양날의 칼'...중국 챗GPT 투자전략 진단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07000876>
- AI로 옮겨 붙는 美·中 갈등
<https://v.daum.net/v/20230418100131599>
- 중국서도 'AI 챗봇' 열풍...규제 그림자 피해갈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07000708>
- 중국 '챗봇' 굴기...바이두, 챗GPT 능가 주장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10000683>

SPC 'ANGEL'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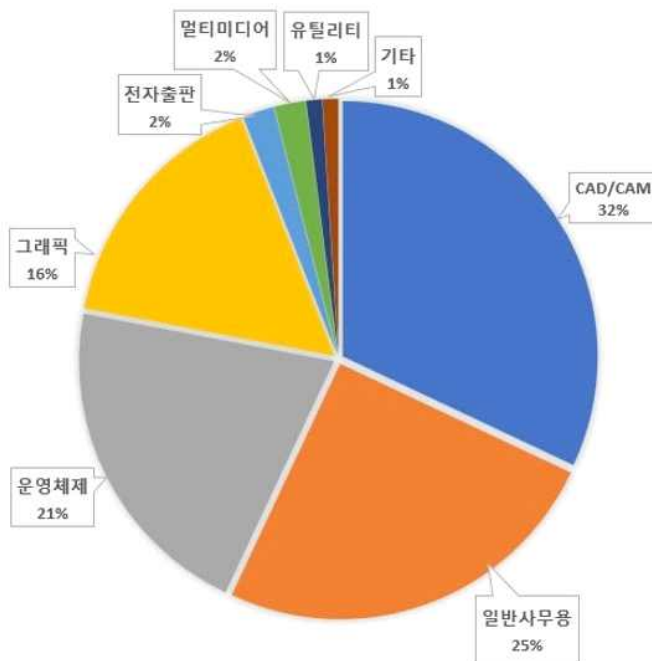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7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월 한 달간('23. 7. 1. ~ 7. 31.) 'ANGEL (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124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설계(CAD/CAM) 40건(32%), 일반사무용 31건(25%), 운영체제 26건(21%), 그래픽 20건(16%), 전자출판 3건(2%), 멀티미디어 2건(2%), 유틸리티 1건(1%), 기타 1건(1%)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023년 7월 통계 현황

2023. 7.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 SW 용도별 제보 건수 -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 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3-13호> 발간일은 9월 10일입니다.